



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이종윤

Rev.

Lee Jong-Yun, Ph. D., D.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ichi-dong Kangnam-gu Seoul, Korea

Tel. 558-1106,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시련 중의 믿음"

(Faith on trial)

■ 시편 73편 1-2절

오늘 본문말씀인 구약성경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말씀을 살펴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 생애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말씀에서 아삽이 제기하고 있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①예 의인들에게 고난이 오는가? ②예 악인들은 형통한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아삽의 인생가운데 제일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삽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I. 아삽은 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시73:1절) 이 말씀은 아삽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지만 아삽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삽은 본문 2절에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삽이 왜 그랬습니까? ①그는 악인들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시73:3절). ②악인들을 죽을 때도 고통이 없었고 그 힘이 강건하기 때문이었습니다(시73:4절). ③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악인들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시73:5절). ④악인들이 교만하고 강포하기 때문입니다(시73:6절). ⑤악인들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시73:7절). ⑥그들은 악한 말만하기 때문입니다(시73:8절). ⑦악인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시73:11절).

II. 아삽의 중간 결론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시73:13절) "내가 어찌 이를 알까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시73:16절) 오늘 우리가 정의를 대면할 때와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 볼 때 도저히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와 그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신의 생의 질문에 대해 네 가지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①악인들의 결말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시73:17-20절). 이 말씀에서 아삽이 찾은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한 잣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위로이고 격려인 것입니다. ②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기입니다(시73:22-23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시73:28절a) 이 말씀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③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23-24절). "주께서 내 오른 손을 붙드셨나이다"(시73:23절b)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시73:24절a) 이 말씀은 성경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썩어 가는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 가는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④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시73:24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궁극적인 위로이고 소망이 됩니다.

맺는 말

오늘 아삽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Lindsay Brown 목사 설교요약)

English Worship Service

Presider : Rev. Joshua Cho

11:20 a.m

Westminster Hall

* Please stand

Prelude		Organist
Call to worship	Psalm 72:18-19	Presider
Invocation		Presider
* Hymn	3(2)	Congregation
*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Responsive Reading	No. 51	Congregation
* Doxology	1(1)	Congregation
Prayer		Elder Young Jun Kim
Hymn	162(151)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2 Samuel 9:1-13	Presider
Member's 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634(7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acher
Anthem	How can I say thanks	Jerusalem Choir
Welcome to Newcomers		Congregation
Sermon	The King's Kindness	Rev. Joshua Cho
* Hymn	263(197)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Singing of the Lord's Prayer		Congregation

The King's Kindness

2 Samuel 9:1-13

Summary of the sermon

Most people miss out on a wonderful relationship with God, because they are afraid. Deep down inside, we know that we have sinned against God. So, we either try to clean ourselves up and make ourselves presentable, or we remain distant. However, since God has opened up the way through His covenant in Christ, we must stop being distant and enjoy fellowship with Him.

First, through covenant with Christ, God holds us until the end. David sought out Mephibosheth, because of David's covenant with Jonathan. David's persistence reflects God's covenant with him. Since we know that God will not stop until He has completed covenant with us, we can go to Him with security. Next, God pours out His mercy and grace. David reassured Mephibosheth that he would not only spare his life (mercy), but also allow him to eat at the king's table (grace). While we were still His enemies, God spared us from His wrath (mercy), and poured out every spiritual blessing (grace). How can we stay distant from Him in light of such love? Finally, God restores everything to its rightful place. At first, Ziba was well off, while Mephibosheth was lowly. Then, David elevated Mephibosheth and put Ziba under him. Despite appearances to the contrary, the first shall be last, and the last shall be first. In the kingdom of God, the wicked will be brought low, while the humble will be lifted up.

For those outside the covenant, why stay where you are? Embrace the Son of David! Disown your kingdom, where you are spiritually crippled and under wrath. For those inside the covenant through Christ, you have experienced God's kindness. Why stay distant from Him? May we all sit at the King's table and enjoy sweet fellowship with Him!

Announcement

Welcome to our worship!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for fellowship in Rm. 104.

Please attend Red Sea Strategy Meeting on everyday early morning at 5 AM.

Please join one of our English Bible classes after fellowship to get plugged into our community.

Our Friday Bible Study will resume again on June 19th. We meet every week at 7pm in Room 603. We will be focusing on the faith of Abraham.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찬 양 예 배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황 광 목사 황 광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이규정 목사 신용식 장로
III 오후 2시 한상은 목사 오정수 장로

임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38:4-5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3(2)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부(심계명) 다 함 께
	2부: 22(시37편)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331(375)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갈 1:1-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헌 금 Offering	다 함 께
* 불현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불현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예수님의 최고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종운 목사
	("Recognizing the Supreme Authority of Jesus")
* 찬 송 Hymn	323(35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오후 5시

·인도, 설교: 이종운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엡 2:14 인 도 자
찬 송	25(25) 다 함 께
기 도	이병헌 집사
찬 송	494(188) 다 함 께
성 경	마 27:50-54 인 도 자
전도프로그램 수료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꽃어진 휘장(II)" 설 교 자
특별찬양	말 은 이
* 찬 송	493(545)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이종운 목사

기 도	I부: 아산에 권사, II부: 임안자 권사
성 경	시 119:113-12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자" 설 교 자

홍 해 작 전

(6월6일-25일)

오전 5시, 분당

설 교 박노철 목사(6월15일까지)
이종운 목사(6월16일부터)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30분

웨스트민스터홀

※ 홍해작전 기간동안 개인기도 시간으로 대체합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여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음악감독: 이 영 조

예 배	찬양대	연 주 곡 명	작(편)곡자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I 부	가브리엘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W. R. Spence	김정희	김현정	백송희	윤주일
II 부	할렐루야	민유의 주께	Bob Krogstad	고성진	오지경	김현주	박광서
III 부	임마누엘	맘 다하여 소리 높여	Marc. A. Charpentier	류종기	김현정	김복희	
찬양예배	배들레헴	기뻐하라! 기뻐하라!	Eugene Butler	김정훈	오신욱	박수강	
영어예배	에루살렘	How can I say thanks	Tom Fetike	김문영	차주연	김수정	
수요 I 부	호 산 나	주를 사모하는 맘으로	D. Christopherson	서희숙	김윤지	홍해란	
수요 II 부	시 온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J. M. Martin	백경화	이순재	서유진	

<헌금송>

I 부	초 등 부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작자 미상	김다희	홍해란	
II 부	그레이트랜드벨	신한 목자되신 우리 주	W. B. Bradbury	송재월		
III 부	이만관현악단	Draw nigh to God	Golbert & Joyce Proff	임병창	임아름	

↳ 뒷면에 계속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장은숙	13-11	에스더	본인	김민	13-11	청년2부	본인	한서준	6-9	영아부	본인
이현주	9-12	마리아	본인	인태윤	5-11	영아부	본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앞면에서 계속

8.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9. 의료 상담 / 이비인후과(안인호) 치과(이진구)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1-9950-5597

장례

1. 고 정현(대학부 정다운 성도 부친) / 7일 별세 9일(토) 발인

1. 고 김전호 집사(12교구 조옥섬 권사 부군) / 10일(수) 별세 12일(금) 천국환송예배

우리의 비전(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교회학교 출석하기	서울교회 성도들은 예배 후 또는 예배 전에 모이는 교회학교에 연령별로 모두 참석하도록 합니다. 주보 6면의 교회학교 안내를 참고하여 성경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품기 운동에 나도 참여합시다	우리교회는 '태신자 품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태신자로 작성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태신자카드'를 작성하여 교회에 제출하시면 함께 기도하고 전도원지도 보내드립니다.
--------------------------------	--



교회 주차장 사용을 양보합니다

우리교회 주차장은 교회당 크기에 비해 매우 비좁습니다.

최근 새가족의 증가 추세와 함께 제일 큰 고민은 주차위원들에게 있습니다.

멀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새신자들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차를 돌리는 모습을 본 주차위원들은 애석한 마음을 갖고 호소합니다.

장시간 주차를 해야 하는 부서에 속한 이들은 대치역 앞에 있는 **강남구민회관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바랍니다.

'섬기겠습니다' 한 올해의 표어대로 새가족을 위해 작은 희생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입니다.

청결 유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가(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니다.
주일 성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